

도반들에 올리는 공양 ‘기쁨 두배’

원효센터, 매주 목요일법회 후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



원효센터 불자들이 법회를 마치고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펼쳐놓고 공양을 하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센터(주지 공파에 가면 가족같은 분위기로 도반들과 즐거운 공양을 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5월 25일 10시 30분,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원효센터 3부 평신도 법회. 법회가 끝난 후의 풍경이 여느 사찰과는 사뭇 다르다. 공양을 준비하는 공양주나 당번이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이 법회에 열중한다 싶더니 법회가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서 준비해온 공양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콩나물, 가지나물을 정성스레 준비해온 불자도 있고, 어떤 이는 무농약으로 시골에서 기른 채소라며 풍성한 푸성귀를 내놓기도 한다. 과일가게를 하는 불자는 판매게시도 하지 않은 최상품의 토마토, 수박을 골

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도반들을 위해 준비 해왔다.

원효센터의 특이한 공양 문화는 남방불교,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두루 수행해온 공파 스님이 복덕을 짓는 한 방법으로 몇 년 전부터 정착시킨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 법속에서 만난 도반만큼 소중한 이들이 없다”고 늘 강조하는 공파 스님은 “법회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해 부처님께, 스님께, 도반들께 공양 올리는 이 마음이 바로 육바라밀 중 보시의 시작이니 법회가

지혜를 닦고 곧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한 불자들도 “공부를 함께 하는 도반들을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니 법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며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차츰 좋은 것만 보면 도반들을 생각하게 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원효센터는 독특한 공양문화 외에도 ‘회비제’라는 또 하나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비록 부산의 법당까지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국에서 회비를 보내오는 불자들이 있어 도량이 운영된다. 이는 대승기신론해동소, 장엄염불 등을 통해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킨 불자들이 다른 불자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량을

공파 스님이 복 짓는 방법으로 정착화 도량 유지·발전 위한 회비제 운영도

“제자들에게 부처님 지혜 심어주자”

부산시 교사불자련 범어사서 합동법회

부산시 교사불자연합회(회장 강석표)는 5월 20일과 2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회원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유지원 교사를 비롯 초·중·고교 교사들의 모임인 19개 지회의 연합회인 부산시 교사불자연합회는 설법근 교육감,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열고 교사 불자들의 신심을 다졌다.

첫날 열린 입재법회는 설법근 교육감의 격려사, 대성 스님의 법문, 강석표 회장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강석표 회장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선생님들

의 불심이야말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 가는 근간이 된다”며 “다함께 정진하여 스스로의 수행에 힘쓰는 한편 불제자를 길러 내는 중심이 되자”고 말했다.

대성 스님은 법어에서 “인천의 스승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혀주셨던 부처님처럼 교사불자들도 제자들의 삶의 길을 부처님의 지혜로 채워주어야 한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합동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예불, 참선, 신행담을 나누었으며 둘째 날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새벽예불로 진행됐다.

1998년 창립된 부산시교사불자연합회

는 19개의 지회로 매년 장애우 체육의 날 행사 돕기, 상반기 특별대법회, 기도수련 법회, 불우이웃돕기 등 법회와 수련회를 갖고 부산 시내 교사불자들의 화합을 도모 해왔다.

천미희 기자

두송복지관, 일일 나들이 봉사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 두레박 봉사단(주무 유재관)은 5월 20일 다대포 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인 20분을 모시고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지에서 햇살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두레박은 2005년부터 매월 다대포 2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방문목욕, 사람의 집고치기 사업, 장애인 일일 나들이 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부산사하구사암련 사무소 개소

부산시사하구사암연합회(회장 남윤)는 5월 24일 무료공양소 및 사하구 사암연합회 사무소 개소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하구 사암연합회 회장 남윤 스님은 인사말에서 “늦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작은 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사하불교 발전과 부처님의 사랑이 자라는 작은 싹터로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문을 연 사하구사암연합회 사무소는 사하구 내 포교사업 뿐 아니라 그 동안 한국불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던 무료공양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은아 기자

“불교문화사업 활성화에 앞장”

내원정사 약사회 윤병호 신임회장 취임



내원정사(주지 정련) 약사회는 5월 22일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제5대 윤병호 회장(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임원간담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내원정사 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윤병호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병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72년 창립되어 34년의 역사를 가진 약사회 회장을 맡아 영광”이라며 “앞으로 신도님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불교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신도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내원정사의 크고 작은 일에 주어진 마

음으로 한결같이 임해온 약사회가 젊고 의욕적인 새 회장을 맞이해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법을 널리 펴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국민인간 문화대재 봉행

참여불교운동본부 김해 연지공원서

(사)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혜홍)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김해 연지공원에서 민족 대단결과 국민인간을 위한 문화대재를 개최했다.

경남지부 창립법회를 겸해 열린 개막식은 혜홍 스님을 비롯 경남지부 지부회장 청화 스님, 상임부회장 겸 김해지회 회장 법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창립법회에서 혜홍 스님은 “참여불교운동본부 경남지부 및 김해지회 창립을 계기로 참여불교운동본부의 통일사업과 복지 사업이 한층 더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대재에는 민주통일 열사, 전몰군경 위령제, 전통 작법무 시연, 율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 민속놀이 한 마당,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도자기 물레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환자들 뜻 모아 관음상 봉안

국립마산병원 관해사, 후불탱화도

국립마산병원(결핵요양소)의 관해사(주지 자은)는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 점안 법회를 5월 21일 봉행했다.

이날 봉안한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는 병원내의 불자 환자 신도들의 모금으로 조성됐다. 점안 법회에 증명으로 참석한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철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천안인 모든 병자들의 고통을 거두어 가고 회망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며 “심 없는 기도자 관세음 보살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고산 스님 직접 범패 시연 ‘눈길’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악회서

주장자를 쥐고 무대에 올라 거북성을 시작으로 삼보 통칭을 선보인 주인공은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쌍계사 조실인 고산 스님. 5월 20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쌍계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악회에서 고산 스님이 직접 범패 시연을 보여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사진).



시연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고산 스님의 무대는 범패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고산 스님은 “이제부터 내가 범패라는 걸 들려줄 텐데 이 범패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며 “노래가 있어 세상이 아름답듯 범패는 엄숙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

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성공양”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스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곁들이며 30분가량 공연을 이어갔다.

진감산사가 삼진간에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틀로 여산 범패를 작곡했다 하여 ‘팔영루’라 이름 붙여진 전각이 있는 쌍계사는 ‘범패’의 발상지로 알려지고 있어 조실 고산 스님의 범패

국선다회가 주최한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회는 ‘진공묘유’라는 주제로 전남 대 국악과 학생들의 민요공연과 대금 연주자 이생강씨의 대금산조, 이필원 씨의 풍기타 연주 등을 선보였다.

또한 21일 열린 진감·초의 다매전 수식에서는 쌍계사 강연 확인 지현스님과 김미현씨를 비롯해 31명이 고산 스님으로부터 다매를 전수받았다.

글·사진/하동=이은아 기자

“호국영령추모대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위령제

천연와불성지 지리산 견불사에서 제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쟁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제를 봉행합니다.

—모시는 글—

“뱃발치는 이데올로기의 격전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호국영령들이시여! 이들의 총구 앞에 덧없이 쓰러져간 한민족의 선열들이시여! 이름 없이, 군번 없이 조국위해 낙엽 된 충혼의 넋들이시여! 역사의 책장위에 붉은 꽃수를 놓으셨네. 그 희생 간지하리니, 조국의 푸른 하늘과 치열한 교전의 이 터에 같이 남으소서. 더 이상 동족의 가슴에 눈물이 맺히지 않도록 더 이상 전쟁의 꽃이 만발하지 않도록 푸른 유혈의 지리산 붉게 피어난 흰 철쭉 속에 평화통일의 염원되어 영원한 자유 수호하소서. 영이시여, 이 땅의 주인 되어 영산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소서.”

1부 추모식 2부 국악한마당
3부 (천도의식)범음법대 4부 영화제

(사)행복한 사회는 첫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둘째, 자비와 평등의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셋째, 참나를 찾기 위한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인성발달과 표상을 일깨우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다섯째, 자원을 사랑하며 국토정결운동을 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출발대행
 | 일 손 돕기 | 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농어촌, 학교내 일손 돕기
 | 위 문 활동 |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자매부대 위문
 | 지 도 활동 | 청소년 사회교육, 교통 안전 지도
 |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생활주변 정화 캠페인, 환경 보전 캠페인
 | 자선 구호 활동 | 재해 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 및 골수 기증,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결식아동 무료 급식지원, 노숙자 봉사 활동, 독거노인 건강검진 지원봉사
 | 봉사생 보충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국토정결 운동, 문화재 보호,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활동
 * 모두가 행복한 세상 '행복사회'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참나사랑 | 부모사랑 | 자선사랑

제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쟁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제

—모시는 글—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추모대제”

영의 신록이 민족의 땅인 지리산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 전착해 회담 있는 홍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鄕音(향음)이 아니라 향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鄕音의 미후에서 벗어나 鄕音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국은 자멸이 하나 되어 민족의 통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발을 일구자는 것입니다. 외란이여 그 자리를 버려주세요.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의 원혼을 추모하고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계단을 놓았습니까. 부디 항일에서 한 걸음은 있는 행사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0(2006)년 6월 6일(화) 서기 2006년 6월 6일(화) 오전 1시 30분

불기 2550(2006)년 6월 6일(화) 서기 2006년 6월 6일(화) 오전 1시 30분

장소 | 지리산 견불사 야외상설무대 | 주최 | 사단법인 행복사회 지리산 견불사

후원 | 불교문화민속예술단/연합불교신문/중국길림신문사/법화불교대학/사천왕사/불림사/성불암/승가공동체문화원/(주)국민상조/서원고속관광여행사

문의 | 중앙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30-5번지 일산프라자 4층 견불사 065)962-3931 서울 02)939-3900 부산 051)892-5000